[대검찰청 감찰부]의 청렴이야기

Monthly 청렴 8 월호(제109호)

간추린 청렴 소식

[1] 대검, '청렴 크로스워드 퍼즐' 실시

대검 감찰부에서 실시한 **청렴 크로스워드 퍼즐**을 전 직원이 함께 풀어보며 청렴의 의미를 되새겨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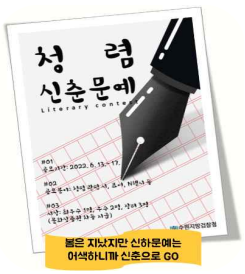
퍼즐을 하나씩 맞춰가며
청렴의지를 다지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2] 서울중앙지검, '용기내요 캠페인' 실시

용기내요 캠페인을 실시하여 **청렴과 환경보호를 동시에 실천**하고, 인증사진들을 모아 친환경 제로 웨이스트 전시회도 개최하였습니다.

용기(courage)내어 청렴할 것을 다짐하고
태블릿 PC를 활용해 용기(텀블러) 사용
인증사진을 전시하였습니다.

[3] 수원지검, '청렴 신춘문예 공모전' 실시



청렴 신춘문예 공모전을 실시하여 **참신한 아이디어로 표어, N행시를 작성**하는 등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최우수작】
공! 공짜식사 좋아하면
정! 정년전에 집에간다

[4] 안양지청, 자체 '청렴소식지' 발간

기관장 청렴교육, 청렴퀴즈행사,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등을 담은 **자체 청렴소식지를 발간**하였습니다.

청렴의지와 청렴활동을
내·외부에 적극 알릴 수 있었습니다

칭찬합니다

2022년도 2분기 클린콜 우수 직원 선정

'22. 7. 15. 대검 감찰부에서는 **일선 청 클린콜 조사 대상 업무* 및 클린콜 담당자**를 대상으로 **청렴활동 우수 직원 4명을 선정하고 격려**하였습니다.

* 기록열람등사, 압수물 가환부, 기소중지 재기, 범죄피해자지원

서울고검 박OO	서울서부지검 안OO
김천지청 김OO	상주지청 조OO

아래는 클린콜 민원인 칭찬의견 중 일부입니다.

기록 양이 많아 버거워하고 있었는데, 직원분들께서 퇴근 전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배려해 주셨습니다.

보고 읽는 스크린 속 청렴!
감성충전, 청렴 명대사

영화 '신의 한 수'는 내기바둑으로 형을 잃고 억울하게 누명까지 쓰게 된 동생이 절치부심 끝에 복수에 성공하는 내용입니다.

주인공은 내기바둑에서 승리하기 위해 판을 뒤집을 신의 한 수를 찾으려고 하지만 세상 어디에도 신의 한 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 “
> 예전에 주님이 물었지, 우리 삶의 신의 한 수가 있겠느냐고
> 이제 알겠어, 그런 묘수는 없다는 걸
> 그냥 하루하루 묵묵히 사는게
>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수지
> ”
> 영화 '신의 한 수' 中

인생의 신의 한 수만을 찾는 사람은 하루하루의 의미를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이 차곡차곡 쌓여 인생의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도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하루를 응원합니다

청렴 상식이 쏙쏙!

청렴이 있는 문화이야기

내가 죽거든, 시호도 주청하지 말고, 묘앞에 비석도 세우지 말라

| 박수량 백비(白碑)

조선시대 공직사회에서도 청렴을 중요하게 여기며 공직자를 선발하는 '청백리'라는 제도가 있었다는 것을 아시나요?

청백리는 청렴하고 강직한 신하에게 내리는 당대 최고의 영예였습니다.

조선중기 1546년 청백리에 올랐었던 문신 박수량이 있습니다. 박수량은 자제들이 셋집을 마다하고 서울에 집을 지으려하자 크게 꾸짖으며 "나는 본래 초야의 출신으로 외람되게 성은을 입어 판서의 반열에까지 올랐으니, 분수에 넘는 영광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어찌 서울에 집을 지을 수 있겠는가" 하는 일화가 있을 정도로 자식들에게도 청빈한 삶을 살도록 하였습니다.

박수량은 형조판서 등 고위관직을 38년 동안 두루거치고 재상에 이르는 직위까지 올랐지만, 그가 죽은 후 장례치를 비용이 없을 정도로 곤궁해 대사헌 윤춘년이 명종에게 아뢰어 겨우 장사를 치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명종은 박수량이 "내가 죽거든 절대 시호를 청하거나 묘비를 세우지말라"는 유언을 남긴 것을 듣고 그의 청백한 행적을 글로 찬양한다는 것이 누가 될 수 있다 하여 글을 쓰지 않고 상징적으로 백비를 세우도록 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박수량의 청렴한 삶,
백비가 주는 깊은 울림

✓ **자료출처** 위키백과, 두산백과 **이미지출처** doopedia.co.kr

상식이 쑥쑥! 선물이 팡팡!

퀴즈 이벤트

아래 밑줄 친 곳에 들어갈 답을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 **OOO**은 48년 동안 미국 하원의원으로 활동했으며, 그 중 17년을 하원의장으로 지냈습니다. **수많은 로비스트들이 접근하였으나 식사 대접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청렴하였던 인물**로, 그의 이름에서 가져와 **미국 하원 의회 건물 이름을 'OOO 빌딩'**으로 명하였습니다.

① 샘 레이번 ② 존 베이너 ③ 칼 알버트

※ 힌트 : Monthly청렴 2022년 7월호를 참고하세요~

정답을 보내주신 대상자 중 **10명**을 추첨하여
문화상품권(2만원 상당)을 경품으로 보내드립니다.
정답과 주소를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 응모기간 : 2022. 8. 22.까지
★ 응모방법 : 700spo69a@spo.go.kr

지난 7월 정답은 ③ **팔로워십** 입니다.
정답자 중 아래의 10명을 추첨하여
소정의 선물을 보내 드렸습니다^^

축! 당첨

김OO(부천), 김OO(안산), 김OO(창원),
박OO(해남), 장OO(청주), 최OO(안양), 최OO(대전),
황OO(수원고검), 한OO(인천), 이OO(외부)

알아두세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내용을 간단한 OX퀴즈로 숙지해 보세요!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동호회 활동을 하거나, 퇴직자의 손주 돌잔치 등 경조사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퇴직자 사적접촉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 소속기관의 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정답 O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5조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에서 금지하는 사적 접촉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의 3가지 유형이며, 이외의 접촉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